사명 · 서산 · 영규 대사 호국정신을 기리다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향사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사명대사 등 의승군 호국정신 조명
석길암 교수 "전쟁 참여, 자비 방편"
표충사 '비단벌레' 서식 연구 MOU도

성낙두 경남지사장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밀양 표충사의 향사와 관련된 학술세미나가 4월 5일 밀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주최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 교수)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이철헌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표충사 향사, 그 연원과 전승',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호국, 호법 정신과 의승병'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석길암 교수는 '호국, 호법 정신과 의승병, 승려들의 참전 연유-사명 유정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통해 호국의 의미와 임진왜란 당시 불교계의 활약을 되짚었다.

석길암 교수는 "사명 유정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표충사를 매개로 의승군의 활동과 조선시대 불교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석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참전 배경은 중생구제와 자비심, 방편 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의승군의 참전은 월계라는 비판도 있지만 조선왕실의 존속과 중생구제를 위해 참전의 결단을 내린 조선 의승군의 활동은 목숨을 담보로 승단의 존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으로 분열돼 있는 이 시점에 사명 스님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자비스럽게 여긴 애민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 향사의 의미를 밝히는 학술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밀양 표충사는 숲속의 작은 친구들(대표 이용화)과 4월 5일 표충사 일대 서식지가 확인된 천연기념물 496호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비단벌레의 생태연구와 증식·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표충사와 ㈜숲속의 작은 친구들은 비단벌레 생태연구를 통한 증식 및 복원, 서식지 보전과 증식 개체의 서식을 위한 조사·연구, 비단벌레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와 서식지 보호 활동에 상호협력한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비단벌레의 서식지 주변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해 멸종위기인 비단벌레가 증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나아가 자연 속에 살아있는 매우 희귀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곤충들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환경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 취임

4월 5일 이취임법회 봉행
"책임감 갖고 발전에 최선"

태고종 경남교구 신임 종무원장에 황봉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종 경남종무원은 4월 5일 창원 힐스카이 컨벤션에서 제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과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임 경남종무원장 황봉 스님, 전 종무원장 환명 스님, 봉행위원장 정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진성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안심정사 법안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진효규 관음사 신도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8대 경남종무원장에 취임한 황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주변의 격려와 염려 덕분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취임을 맞이하게 됐다"며 "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의 공적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경남종무원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황봉 스님은 이어 "종무행정을 하나하나 체득하고 가슴 깊이 새겨 경남 종도들과 함께 태고보우국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경남종무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종무원에 500여 부처님을 조성하고 불교대학 개설과 종무원사 이전에 따른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취임하는 황봉 스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과 전 종무원장 환명 스님께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남교구는 종단의 중심 교구로, 종단 발전과 종단의 중점 종책사업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왔다. 경남교구와 종단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경남종무원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임하는 환명 스님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며 임기 동안 경남종무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치하했다.

17대 종무원장의 소임을 마친 환명 스님은 이임사에서 "임기 중 종도들의 숙원사업인 종무원사의 건립을 완료하였지만 종무원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18대 종무원장에 취임하는 황봉 스님께서 오랫동안 종무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 탁월한 역량으로 숙원사업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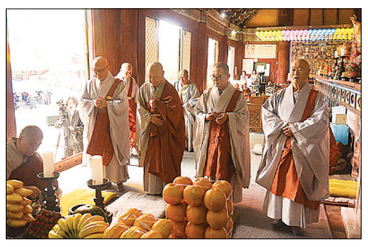
한편 이날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태고종 경남종무원 무료급식소 지원을 위해 백미 3000kg을 황봉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정호당 영호 대종사 76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역대조사 다례재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7일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정호당 영호 대종사 7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경내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각각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정호당 영호 대종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국대에서 전서를, 불교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대종사 추모재에 이어 부도전에서는 지난해 입적한 서광당 재덕스님의 부도탑 제막식과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진행됐다. 참석대중은 선운사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 계승을 다짐했다.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파긍선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4월 7일 경내 대웅전서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갈수 스님)는 4월 7일 경내 대웅전에서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갈수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을 100만 독송할 것을 누구에게나 권하셨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앞서 본인 스스로가 제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후학인 우리도 관음정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원로위원 동명 스님은 "항상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공부를 하라"는 법어를 내리고 관음정진 100만 독 봉행번을 이인범 광수사 신도회장에게 수여했다.



기념법회에는 원로위원 동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한편, 광수사는 관음정진 100만독 불사를 4월 7일에 결제해 7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봉행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반야사, 영산전 낙성·16나한 점안 봉불식

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증명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4월 7일 '영산전 낙성법회 및 16나한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로 동참한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늘 염불하고 선정에 들고 주력 수행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나라와 사회, 나와 나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웅전 불사를 회향하고 10년 만에 영산전과 16나한 점안법회를 회향하게 됐다. 16나한은 이승에 거하며 부처의 정법을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를 상징한다"며 "불사 중 코로나 사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사에 동참한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시적암, 산속 농부학교 입학식

전남 화순 시적암(주지 법일 스님)이 4월 6일 경내에서 '제2회 산속농부학교' 입학식을 갖고 사찰·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부학교를 시작했다.〈사진〉

모후산생태협동조합(주) 주최로 이날 개교한 산속농부학교는 4월 6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2회씩 파종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련 지식과 재배 방법을 배운다. 5월 산사물체험 특강, 6월 친환경 농법 견학, 7월~8월 유기농업, 9월 과일 수확체험, 10월 밤 수확체험, 11월 숲체험 등 특별 강좌와 견학 등을 진행한다.

법일 스님은 "산속농부학교를 통해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살리는 농사,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불교회관 '리틀붓다' 입학식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4월 6일 진주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어린이 법회 '리틀붓다' 입학식을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는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안정임 부이사장, 지도법사 희묵 스님을 비롯해 입학 어린이 25명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린이들이 지혜롭고 선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삶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리틀붓다는 5세~13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리, 불교 동화, 퀴즈, 찬불가를 가르친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도 강의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피치 교육도 진행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천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문 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7일 제천역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문 스님과 연합회 회원 스님들을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의장, 김상수 제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문 스님은 "지난해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열었던 점등식을 올해부터는 제천역 광장에서 봉행하게 됐다"면서 "자연 치유의 도시인 제천시의 모든 시민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장엄등은 5월 15일 부처남오신날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밝히게 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위문 공연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스님)과 (사)붓다 봉사단(단장 이재현)이 4월 6일 육군 35보명사단(사단장 오혁재 소장) 호국충경사(법사 정인)를 방문해 특별법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펼쳤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우리나라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청정하게 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박서준 훈련병은 "진성 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볼거리랑 즐길거리 마련해 주셔서 남은 군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솔암, 속옷 구입비 지원

고창 도솔암(주지 성본 스님)은 4월 11일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에 '도솔암 성본 스님의 토닥토닥 프로젝트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기금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속옷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성본 스님은 "많은 신도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경내 무료 찻방에서 보시기금을 마련해 매월 50만원씩 모연했다"며 "아이들 본인이 고른 속옷을 입으며 자존감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원은 매월 3~4명씩 각 학교 교육복지사의 추천으로 1인당 15만원 내외의 속옷 세트가 지원되며, 해당 아이들이 직접 속옷 가게를 방문해 구입하는 형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